

#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8호 [부제 제23220호] 주체99 (2010)년 9월 25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대외관계  
위원회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부위원장인 통씨 인타판단장이 24일 김영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브라질신문 《오라도 보보》가 보도하였다.

신문 2일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훌륭히 기술개진된 평양공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공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모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당과류를 비롯한 식료품생산에 부단히 늘이는 것과 함께 그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맛있고 보기 좋은 사탕, 과자를 공급하자면 이 부분에서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향료와 색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상품도안도 개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일련한선 조선로동당을 따라 준엄한 혁명의 한길

을 곳곳이 헤쳐나며 역세게 투쟁해온 가장 훌륭한 조선인민에게 보다 풍성한 생활을 하루빨리 마련해주시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신문 4일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신문은 호남도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김정일동지께서 4개월만에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신것은 두 나라 로세대동지들께서 마련해주신 전통적인 조종친선을 얼마나 중시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국방문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20일 중국의 신희화신문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내무군 내성취주약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는 최근 조선인민내무군 내성취주약

단의 예술인들이 조선의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사상에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면서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조선인민내무군 내성취주약단은 공연무대에 취주약 《당은 장군님의 품》, 금판4중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색소폰중주 《강성대국이 보인다》, 트럼페트3중주 《더 높이 더 빨리》 등 다채로운 중곡들을 올렸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취주약단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 혁명적군인에술부대의 위력을 더 높이 펼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이날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 체스피주체사상인 및 구련소조와 백두산체스조선친선협회 인터넷공동홈페이지 《조선-백두산》도 김의 소식을 보도하였다.

15일 체스피의 인터넷홈페이지 《조선-백두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본사기자

##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 김정일각하께 삼가 올립니다

각하  
오늘 우리들은 귀국의 아름다운 수도에서 열두번째로 열린 평양국제영화축전에 참가한 기쁨을 안고 각하께 삼가 이 편지를 올립니다. 평양국제영화축전은 참으로 독특한 축전입니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이 축전은 세계 진보적영화인들의 커다란 기대 속에서 진행되고있습니다.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인상깊은 축전으로 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각하의 령도와 조선인민의 성의있는 노력이 있기때문입니다. 이번 축전은 화목하고 자유로운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공통된 지향과 념원을 훌륭히 반영하였으며 각하의 민족의 다양한 풍습과 문화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축전기간 우리들은 용감하고 근면한 조선인민이 뜻깊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려고있는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당면하여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의의있는 사변들로 맞이

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귀국의 영화인들이 각하를 자애로운 스승으로 모시고 영화창작에 모든것을 바치고있는 모습에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제12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기회에 축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길 김정일각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훌륭한 영화를 창작하여 인류의 문화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평양국제영화축전에 계속 참가할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들은 친근한 조선인민에게 행복과 번영만이 있기를 바라며 세계의 평화와 조선영화예술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하여 김정일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제12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일동  
2010년 9월 24일 평양

##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

【평양 9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즈음하여 로씨야에서는 우리 나라 도시, 사건 및 수공업품전시회 개막식과 영화감상회가, 메히코에서는 강연회가 17일과 18일에 진행되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으며 그안에 불멸의 꽃 김정일화들이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저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선군건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위대한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업품들이 전람회장엔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들에는 로씨야 연해변강행정 그들은 그 위력과 정당성이 뚜렷이

부, 울라지보스토크시행정부, 울라지보스토크주재 외국대사, 통일외교부, 사건 및 수공업품전시회 개막식과 영화감상회가, 메히코에서는 강연회가 17일과 18일에 진행되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으며 그안에 불멸의 꽃 김정일화들이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저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선군건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위대한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업품들이 전람회장엔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들에는 로씨야 연해변강행정 그들은 그 위력과 정당성이 뚜렷이

실종되고있는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자주성을 위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투쟁의 기치라고 격찬하였다.

로씨야 크로이코프회사 사장은 우리 나라 영화 《칠보산》을 감상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칠보산을 누구나 마음껏 즐길수 있는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주신 김정일령도자께서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어머니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새 세계에도 사회주의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발전시키며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만을 떨치고있는 비결은 바로 선군정치에 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반드시 강성대국을 일떠세울것이다.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건강하

##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스런 성과를 안고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자

### 현지말씀판찰에로 떠미는 힘있는 정치사업

꿈에도 그리운 경애하는 장군님을 어방천발전소 연세건설장에 모시었던 지난 5월의 감격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정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 판찰을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건설자들을 불러 일으키는 정치사업을 기백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꾼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대중을 영웅적투쟁과 위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고 신속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고조선시대의 참된 지휘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연합기업소 당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판찰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치고있다.

정치사업의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판찰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치고있다.

정치사업의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판찰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치고있다.

### 평양공산공장 당과류직장 준공식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은성속에 평양공산공장 당과류직장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하였다.

현대적으로 새롭게 꾸려진 당과류직장 준공식이 24일에 진행되었다.

리태남 내각부총리, 조영철 식료이용공업상, 관계부문 일꾼들, 공장장 리만단위 일꾼들, 근로자들, 대학교원, 연구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평양공산공장 지배인 박형철의 준공사에서 이어 기사장 김경하, 직장장 김준모, 로동자 조애란이 토론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앞두고 당과류직장을 준공하게 된 기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투사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설비관리를 짜고들고 종업원들의 기술능수준을 높여 CNC화된 설비들이 더 나은 내도록 함으로써 당과류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식료품들이 많이 차배지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자랑스런 노력적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추건설장에 멋있게 뛰어 들어가서 위하여 더욱 힘있게 투쟁해나갈것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벼가을걷이가 시작되었다

각지 농촌들에서 뜻깊은 올해의 벼가을걷이가 시작되었다.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분발해나선 각지 농업근로자들은 떨쳐나서 농작물을 제철에 하실없이 거두어들일 열의와 애를 벼가을걷이 첫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을걷이를 빨리 다그쳐야 하겠습디다.》

각 도,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뜻깊은 올해에 농민로력자를 높이 쌓아올릴 열의로 떨쳐나 불태워내내 애써 지어놓은 곡식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농촌경제위원회와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꾼들은 협동농장에서 수확기와 트랙터, 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 수리정비와 중소농기구준비를 빈틈없이 하였다.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가을걷이에 들어간 농촌들에서는 첫날부터 실적을 부쩍 올리고있다. 그 앞장에는 서해북방 열두살관리부의 농촌들이 서있다. 문덕군과 속천군.

농민이 되고 하면서 벼가을걷이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새해영농준비에 진입한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찾아주시고 농사를 잘 짓도록 고무격려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맹세를 다짐하며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은 그날 가을걷이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모든 작업반들에서 실정에 맞게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가을걷이와

## 중소형발전소건설 활발 전국 각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강하천이 많은 조건에서 대규모수력발전소와 함께 중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야 전기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각지 중소형발전소 건설자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최첨단기술을 가진 건설자들의 정열을 본받아 건설물의 질보장에 큰 힘을 쏟고있다. 새로 일떠서고있는 중소형발전소들은 발전능력이 비교적 크고 건설물의 질이 아주 높다. 이미 완공된 메성강6호발전소와 연산강발전소는 해당지역 지방산업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생산보장할수 있으며 건설물의 질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었다.

중공을 눈앞에 두고있는 윤송강3호발전소를 비롯한 수많은 중소형발전소들은 지방의 특성에

맞게 독특하게 건설되었으며 수력자원이 걸고 있다. 연하발전소와 초산정년1호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중소형발전소 건설자들은 발전설비조립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 품질요구에 의한 발전소관리운영체계를 훌륭히 완성할수 있게 하였다. 자강도와 황해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량강도를 비롯하여 각 도, 시, 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중소형발전소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이 사업을 보다 튼튼하게 밀고나가고있다.

백 산 해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해 광물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명 남 찍음











# 선군의 기치높이 주체의 한길로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2돐에 즈음하여

###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하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2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 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칼레크 자만 부이안, 인민혁명 위원장 가리보 네와즈, 방글라데시-조선친선 및 연대위원회 서기장 라기브 아흐만 툴라, 로씨야 이끄러 모이예프 보링겐 국립아카데미 야인숙수용단 지대인 엘레나

세르바코바와 무용단 주요성원들이 7일과 9일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 방문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증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캄보쟈, 이란, 에리트리아, 브라질에서 토론회, 좌담회, 강연회, 사진전 등이, 영화감독이 브라질에서 집회, 강연회,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람회 등 경축행사를 6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나라와 불려불가나타라 인민들의 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지원해주셨다고 언급하고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 밑에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체의 생건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로 조선반도의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있지만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조선인민은 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극복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있다. 영화감독들에서는 《오늘의 평화》, 《강성대국의 불모라》, 《조선의 대담》 등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 사무위원회의 위원이 에리히 차비달은 집회에서 한 연설에서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 안더씨카 아호는 사진전시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그 어떤 대적도 범접할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위용될것이었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인 김일성주체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거머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옹호하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강국으로 위용될것이고는 우리 공화국이 편인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면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종같이 내달리고있는 소식과 우리 조국의 명승지들과 대가 넘비적창조물들을 소개하는 글들을 실었다.

### 신분, 잡지 기념특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잡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체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 절세위인들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라오스신문 《콤똘싸손라오》 9일부는 평양시전경을 그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조선인민은 세계적인 박우와 민군을 털어버리고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적인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였다. 조선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조선은 김일성주체께서 창시하고 김정일동지께서 발전공부하시키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잡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체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 절세위인들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라오스신문 《콤똘싸손라오》 9일부는 평양시전경을 그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조선인민은 세계적인 박우와 민군을 털어버리고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적인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였다. 조선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조선은 김일성주체께서 창시하고 김정일동지께서 발전공부하시키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조선인민은 세계적인 박우와 민군을 털어버리고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적인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였다. 조선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조선은 김일성주체께서 창시하고 김정일동지께서 발전공부하시키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조선인민은 세계적인 박우와 민군을 털어버리고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적인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였다. 조선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조선은 김일성주체께서 창시하고 김정일동지께서 발전공부하시키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조선인민은 세계적인 박우와 민군을 털어버리고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적인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였다. 조선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조선은 김일성주체께서 창시하고 김정일동지께서 발전공부하시키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인민은 누구나 다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세심없는 나라에서 무료교육,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누리고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락원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회주의부루로 찬양하고있다. 오늘 조선에서는 주체철생산체계가 완성되고 비남분포가 높아지는 등 획기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선군의 기치따라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달상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참으로 사회주의국가이다. 본사기자

### 높이데 대해 언급

그는 모든 교육자들이 고상한 도덕성을 키우고 전문가적 자질을 높여 교육사업의 과학적발전을 추동하고 인력자원 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교육자들이 고상한 도덕성을 키우고 전문가적 자질을 높여 교육사업의 과학적발전을 추동하고 인력자원 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교육자들이 고상한 도덕성을 키우고 전문가적 자질을 높여 교육사업의 과학적발전을 추동하고 인력자원 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교육자들이 고상한 도덕성을 키우고 전문가적 자질을 높여 교육사업의 과학적발전을 추동하고 인력자원 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교육자들이 고상한 도덕성을 키우고 전문가적 자질을 높여 교육사업의 과학적발전을 추동하고 인력자원 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교육자들이 고상한 도덕성을 키우고 전문가적 자질을 높여 교육사업의 과학적발전을 추동하고 인력자원 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교육자들이 고상한 도덕성을 키우고 전문가적 자질을 높여 교육사업의 과학적발전을 추동하고 인력자원 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교육자들이 고상한 도덕성을 키우고 전문가적 자질을 높여 교육사업의 과학적발전을 추동하고 인력자원 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일본의 제재조치를 비난

이란의무성 대변인이 5일 이르나선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일본의 제재조치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란의무성 대변인이 5일 이르나선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일본의 제재조치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란의무성 대변인이 5일 이르나선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일본의 제재조치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란의무성 대변인이 5일 이르나선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일본의 제재조치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란의무성 대변인이 5일 이르나선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일본의 제재조치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란의무성 대변인이 5일 이르나선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일본의 제재조치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란의무성 대변인이 5일 이르나선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일본의 제재조치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란의무성 대변인이 5일 이르나선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일본의 제재조치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 여러 나라들 협조

월남과 라오스가 15일 항공운수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협정과 국경지역에서의 자동차통과절차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월남과 라오스가 15일 항공운수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협정과 국경지역에서의 자동차통과절차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월남과 라오스가 15일 항공운수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협정과 국경지역에서의 자동차통과절차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월남과 라오스가 15일 항공운수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협정과 국경지역에서의 자동차통과절차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월남과 라오스가 15일 항공운수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협정과 국경지역에서의 자동차통과절차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월남과 라오스가 15일 항공운수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협정과 국경지역에서의 자동차통과절차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월남과 라오스가 15일 항공운수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협정과 국경지역에서의 자동차통과절차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월남과 라오스가 15일 항공운수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협정과 국경지역에서의 자동차통과절차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 미해군함선 일본에 기항

미해군함선 《디펜더》호가 21일 오키나와현의 히라타항에 기항하였다.

미해군함선 《디펜더》호가 21일 오키나와현의 히라타항에 기항하였다.

미해군함선 《디펜더》호가 21일 오키나와현의 히라타항에 기항하였다.

미해군함선 《디펜더》호가 21일 오키나와현의 히라타항에 기항하였다.

미해군함선 《디펜더》호가 21일 오키나와현의 히라타항에 기항하였다.

미해군함선 《디펜더》호가 21일 오키나와현의 히라타항에 기항하였다.

미해군함선 《디펜더》호가 21일 오키나와현의 히라타항에 기항하였다.

미해군함선 《디펜더》호가 21일 오키나와현의 히라타항에 기항하였다.

### 위험한 군국주의 침략세력

일본은 얼마전에 발표한 《2010년 방위백서》에서는 《일미보통체제》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억제력》으로서의 제일미군의 존재를 확보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군은 《창》과 같은 역할을 높이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방패》역할만 하므로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시사하였다.

일본은 얼마전에 발표한 《2010년 방위백서》에서는 《일미보통체제》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억제력》으로서의 제일미군의 존재를 확보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군은 《창》과 같은 역할을 높이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방패》역할만 하므로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시사하였다.

일본은 얼마전에 발표한 《2010년 방위백서》에서는 《일미보통체제》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억제력》으로서의 제일미군의 존재를 확보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군은 《창》과 같은 역할을 높이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방패》역할만 하므로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시사하였다.

일본은 얼마전에 발표한 《2010년 방위백서》에서는 《일미보통체제》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억제력》으로서의 제일미군의 존재를 확보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군은 《창》과 같은 역할을 높이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방패》역할만 하므로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시사하였다.

일본은 얼마전에 발표한 《2010년 방위백서》에서는 《일미보통체제》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억제력》으로서의 제일미군의 존재를 확보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군은 《창》과 같은 역할을 높이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방패》역할만 하므로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시사하였다.

일본은 얼마전에 발표한 《2010년 방위백서》에서는 《일미보통체제》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억제력》으로서의 제일미군의 존재를 확보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군은 《창》과 같은 역할을 높이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방패》역할만 하므로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시사하였다.

일본은 얼마전에 발표한 《2010년 방위백서》에서는 《일미보통체제》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억제력》으로서의 제일미군의 존재를 확보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군은 《창》과 같은 역할을 높이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방패》역할만 하므로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시사하였다.

일본은 얼마전에 발표한 《2010년 방위백서》에서는 《일미보통체제》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억제력》으로서의 제일미군의 존재를 확보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군은 《창》과 같은 역할을 높이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방패》역할만 하므로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시사하였다.